

NO.1

행복은 탁월성이다. 이러한 행복은 목적지향성, 능동성, 이타성, 지속성을 조건으로 한다. 행복을 성취하는 사람은 재능적이든 도덕적이든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행복 자체가 한 개인이 탁월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끊임 없는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주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탁월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이 순환된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이며 자신의 탁월함으로 주변까지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데 이러한 이타적인 행위가 행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행복은 혼자서는 지속하기 쉽지 않고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폴씨주자는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다. 폴씨주자가 마라톤에서 폴씨그룹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한 행위는 행복의 능동적, 목적지향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폴씨주자는 자신의 초라한 성적과는 상관 없이 자기 주체적으로 마라톤이라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마라톤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능동적으로 성취해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목적성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폴씨주자의 행위는 관객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며 행복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에서 폴씨주자는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3의 페렐만은 양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페렐만이 세계적인 수학적 난제를 풀어낸 행위는 행복의 탁월성과 능동성, 목적지향성의 관점에서 행복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재능적 탁월함으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했던 ‘푸앵 카레 추측’을 풀었다. 그로 인해 자신의 탁월성을 입증해내고 타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는 행복을 성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타인들에게 기쁨을 준 행위가 비록 의도적인 것은

